解題

一、머리말

이 책은 退溪 李滉이 주자의 書簡을 刪節하여 엮은 『朱子書節要』(一)와 그 註釋書인 『朱子書節要記疑』(二)·『朱子書節要講錄』(三)을 함께 묶어서 영인한 것이다。『節要』는 이미 퇴계 당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읽혀 『心經』·『近思錄』과 함께 朱子學 입문의 가장 중요한 필독서가 되어왔으며、그 후대에 편찬되는 朱子書 選集類의 嚆矢가 되어 한국 주자학의 연구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뿐만 아니라 퇴계가 주자의 어느 설을 정설로 인정 수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주자학 내지 퇴계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기의』와 『강록』은 퇴계 또는 그 직계 제자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절요』 최초의 주석서라는 데에서 史的 의의가 크며、그 학술적 가치도 높이 인정된다。

여기 간행된 것은 모두 奎章閣 所藏本이다。그 중 『절요』는 지금까지 발견된 책 중에서는 유일하게 궁중에서 사용하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이어서 글자가 매우 楷正하고 우아하다。책의 말미에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書院刊〉이란 刊記가 붙어 있어 이 책이 英祖 一九년(一七四三)에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 시기는 아직 丁酉字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므로 이 책은 戊申字로 인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그런데 궁중에서 사용하는 금속활자를 외부로 옮겨서 책을 인쇄하는 경우는 없는데 멀리 도산서원까지 옮겨서 이 책을 인쇄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

(一) 이하 「節要」로 약칭한다。
(二) 이하 「記疑」로 약칭한다。
(三) 이하 「講錄」으로 약칭한다。

되지 않는다。필자의 생각으로는、이 책은 도산서원에서 간행할 목판본 판각의 대본용을 활자로 인쇄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기의』와 『강록』은 모두 필사본이다。『기의』 一권 첫째 판(板) 하단에 〈侍講院〉이란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이 책이 世子侍講院 소장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기의』는 『절요』의 전신인 퇴계의 『晦庵書節要』의 필사본의 체제에 맞는 一五권 완질이다。『강록』은 上·下 양권으로 되어 있고 『절요』 二〇권 중 一권에서 八권까지의 주석만 남아있으며、八권 말미에 〈右退溪門人李德弘所錄。〉이라 쓰여져 있어 기록자가 퇴계의 제자인 艮齋 李德弘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로 미루어 이 외에 이덕홍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講錄이 더 있어 완질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데、『退溪先生文集考證』에 의하면 그 기록자는 역시 퇴계의 제자인 李咸亨이다。그가 이덕홍과 함께 퇴계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심경』과 『절요』에 관한 제자들의 질의에 대한 퇴계의 답을 모아서 『心經釋義』와 『朱子書節要講錄』을 만들었다。[四] 그러나 이함형이 기록한 강록의 뒷부분은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二、『절요』의 편찬과 간행

朱子의 저술은 고려 忠烈王 一六년(一二九〇) 安珦이 燕京에서 초록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그리고 조선 世宗 때에 尹岐가 『朱文公集』 三二권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질의 『朱子大全』[五]은 中宗 계미년(一五一三)에 와서야 校書館에서 처음 公刊되었다。그리고 퇴계가 『대전』을 처음 본 것은

(四) 咸亨：字平叔 號天山齋 居京 寓居順天 遊先生之門 嘗與艮齋裒集先生答心經及朱子書節要疑問之說 名曰心經釋疑 曰朱子書講錄 見行于世。

(五) 이하 「大全」으로 약칭한다。

그보다 二〇년 뒤인 중종 三八년(一五四三)이었다。 따라서 『대전』을 퇴계 이전의 학자들도 보았을 터이나 본격적인 연구는 퇴계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이 동방에 유통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이 책을 본 선비가 드물었다。 嘉靖 계묘년에 우리 中宗大王께서 교서관에 명하여 印出 頒行하였다。 내가 이에 비로소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수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책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병으로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여 溪上에 있을 때 문을 닫고 靜居하며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이 책의 내용에 맛이 있고 의리가 무궁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찰에서 더욱 느낀 바가 많았다。…… 그렇지만 篇帙이 浩繁하여 다 읽어 보기가 쉽지 않으며 게다가 제자들의 물음에도 혹 得失이 있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자신의 식견을 헤아리지 않고 그 중 특히 학문에 유관하고 학자의 受用에 절실한 것들을 골라서 表出하되 篇章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요긴한 부분을 뽑는데 주력하였다。 그런 다음 벗들 중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나 子姪들에게 부탁、 卷을 나누어 맡아서 淨寫하게 하니、 모두 一四권 七책이 되었다。 본집에 실린 것과 비교해 보면 감소한 부분이 三분의 二가 된다。(六)

퇴계가 쓴 『절요』의 서문이다。 『대전』을 입수하여 탐독하다가 특히 서간문에서 感發한 바가 많았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에도 得失이 있기에 학문에 유용한 부분을 추려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전』에 실린 서찰은 모두 四八권 一七〇〇여 편인데 그 중 퇴계가 뽑은 것은 一〇〇八편이고、 또 내용을 刪節하여 『절요』에 수록된

(六) 此書之行於東方 絕無而僅有 故士之得見者蓋寡 嘉靖癸卯中 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 臣滉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 猶未知其爲何等書也 因病罷官 載歸溪上 得日閉門靜居而讀之 自是漸覺其言之有味其義之無窮 而於書札也 尤有感焉 …… 顧其篇帙浩穰 未易究觀 兼所載弟子之問 或不免有得有失 滉之愚竊不自揆 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 表而出之 不拘篇章 惟務得要 乃屬諸友之善書者及子姪輩 分卷寫訖 凡得十四卷爲七册 蓋視其本書所減者殆三之二。

것은 『대전』의 三분의 一쯤 된다。年譜에 의하면 이 책의 編次를 완성한 것은 퇴계의 나이 五六세 때였으며、위 서문은 그 二년 뒤인 五八세 때 쓴 것이고 퇴계의 死後에 발견되었다。

『절요』는 一五六一년 당시 星州牧使였던 錦溪 黃俊良이 永川 臨皐書院의 활자로 처음 印行하였고、이어 一五六四년 立巖 柳仲郢이 海州에서 간행하였다。그리고 一五六四-一五六七년 사이에 平壤에서 간행된 것이 있었는데 모두 활자본이었으므로 한번 인쇄하면 다른 책을 인쇄하기 위해 곧바로 活版을 해체해야 하는 당시 인쇄술의 한계 때문에 그 部數가 많을 수 없었다。책의 제목도 『晦庵書節要』였고、그 체제는 처음 필사할 때는 一五권 七책이었다가 인쇄할 때 一六권 八책으로 바뀌었다。一五六七년 위 유중영이 定州牧使로 부임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면서 퇴계가 만든 註解와 目錄을 첨부하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二〇권 一〇책 『절요』의 체제를 처음 이루었다。그리고 一五七五년 川谷書院에 간행된 本부터 퇴계의 서문이 붙었다。一六一一년에는 愚伏 鄭經世가 全羅監司로 있을 때 그의 스승 西厓 柳成龍으로부터 받은 필사본을 錦山에서 간행하였다。그 후 英祖 一九년 癸亥(一七四三)、陶山書院에서 간행되었으며、光武 八년 甲辰(一九〇四)에 도산서원에서 중간되었다。

이상과 같이 『절요』는 국내에서 모두 여덟 차례 간행되었다。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晦庵書節要』

一。星州本(활자 一五六一) …… 黃俊良

二。海州本(활자 一五六四) …… 柳仲郢

三。平壤本(활자 一五六四~七) …… 미상

『朱子書節要』

四。定州本(목판 一五六一) …… 유중영

五。川谷書院本(목판 一五七五) …… 미상

六。錦山本(목판 一六一一) …… 鄭經世
七。癸亥陶山書院本(一七四三)
八。甲辰陶山書院本(一九〇四)

일본에서도 모두 네 차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一六五六년에 荒木利兵衛가 川谷書院本을 저본으로 하여 처음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明曆本(一六五六)이다。 그 이후로 寬文本(一六七一)、寶永本(一七〇九)、明治本(一八七一)이 차례로 간행되었다。 모두 목판본이다。

이와 같이 『절요』는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朱子書 내지 주자의 여타 저술、語類 등의 選集類의 간행을 촉발시켰다。 그리하여 尤伏 鄭經世의 『朱文酌海』、尤庵 宋時烈의 『節酌通編』、大山 李象靖의 『朱子語節要』、定齋 柳致明의 『朱節彙要』、正祖의 『朱子會選』·『紫陽會英』·『朱子選統』·『朱書百選』·『朱子書節約』 등이 속속 출현하여 주자학의 보급과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三、『節要』의 학술적 가치

주자의 서찰을 중요한 학문 자료로 인식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마도 퇴계가 처음일 듯하다。 『대전』은 주자의 초년에서 만년까지 모든 저술들을 망라해 놓은 것이어서 어느 것이 최종의 정설인지는 보는 사람의 식견과 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주자학 자체 안에서 다양한 分派가 생겨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답의 상대가 다양하고 저작 연대의 고증이 용이하지 않은 서찰의 경우에 정설을 추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절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는 이 책에서 산삭、수록된 부분을 통해서 퇴계가 주자의 어느

학설을 정설로 인정하고 어느 학설을 부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先賢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는 道學者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절요』의 가치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퇴계는 「答李仲久書」에서 당초에 『절요』를 편집한 목적은 浩繁한 내용을 節錄하여 노년에 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학문에 긴요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刪節되었을 터인데 그 산절의 기준이 간단하지 않다。 서찰의 서두、중간、말미、또는 문장 속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字句 등 다양한 곳이 산절된 것은 되도록 내용을 축약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터이나 일견해서는 학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의외로 수록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 일례를 들어 보겠다。

예전에 南時甫의 서찰을 받아 보니、『절요』중에 수록된 「答呂伯恭書」의 〈요즈음 며칠 동안 매미 소리가 더욱 맑으니、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대의 高風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소。〉라는 구절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런 헐후한 말을 무엇 하러 수록하였소?〉 하였습니다。 당시 나의 答說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대의는 〈헐후한 것으로 보면 헐후하고 헐후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헐후하지 않다。〉고 한 듯합니다。 대저 사람의 소견이 같지 않고 좋아하는 바도 다른 법입니다。 나는 평소에 이러한 곳을 매우 좋아하여 매양 여름이 와 나무에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귀에 가득 울리면 마음 속으로 두 분 선생의 高風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七)

퇴계는 학문의 범주를 문자로 기록된 학설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사소해 보이는 언행들을 『논어』에 수록했듯이、그 자신 주자의 언행 곳곳에서 주자의 체취 및 당시 師友의 學風、분위기 등을 함께 읽음으로

(七) 當得南時甫書 擧節要中答呂伯恭書數日來蟬聲益淸 每聽之 未嘗不懷高風也一段云若 此歇後語 取之何用 滉答說 今不能記得 其大意若曰作歇後看則歇後 作非歇後看則非歇後云云 大抵人之所見不同 所好亦異 滉平日極愛此等處 每夏月綠樹交蔭 蟬聲滿耳 心未嘗不懷仰兩先生之風。

써 주자를 온 몸으로 느끼며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즉『절요』중에서 緊切하지 않은 곳들은 인간 주자의 세세한 곡절들을 통해서 성현의 인품과 기상을 體認하려는 의도에서 퇴계가 수록했던 것이다。

또한 퇴계가 주자의 서찰을 중시했던 것은 서찰에서 가장 핍진한 주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아울러 주자의 학설의 변천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그래서「答張敬夫書」와 같이 中和說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정설과 다른 곳들도 비교적 자세히 수록해 두기도 하였고、정설과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刪削하기도 하였다。퇴계가 산삭한 부분 중에서 후대에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 설을 보기로 한다。

먼저『절요』一○권「答蔡季通書」에서 刪削된 부분을 인용하고、一九세기 嶺南 主理論의 대표적인 학자인 寒洲 李震相의 설명을 통해 그 까닭을 살펴보겠다。

사람이 태어남은 性과 氣가 합한 것일 뿐이다。그러나 이미 합해진 상태에 나아가 분석해 말한다면 性은 理를 爲主하여 形이 없고 氣는 形을 위주하여 質이 있다。理를 위주하여 形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여 善하지 않음이 없으니、따라서 그 發하는 것이 모두 天理가 行하는 것이고、形을 위주하여 質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워 혹 善하지 않으니、따라서 그 발하는 것이 모두 人欲이 짓는 것이다。이것이 舜이 禹를 경계한 것이다。따라서 천리와 인욕이 구별되는 것은 그 근본으로부터 이미 그러하다。氣가 하는 바에 過·不及이 있은 뒤에 인욕으로 흘러드는 것이 아니다。그러나〈人心〉이라고만 했고 보면 진실로 모두 邪惡하다고 한 것은 아니며、단지〈위태하다[危]〉고만 했고 보면 진실로 곧바로 凶咎하게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다만 이미 理를 위주하지 않고 形을 위주로 했고 보면 사악한 쪽으로 흘러가서 凶咎하게 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을 터이다。이 때문에〈위태하다〉한 것이니、반드시 善하여 惡이 없고 안정됨은 있고 傾覆됨은 없으며 뚜렷한 표준이 있어 의거할 수 있는 道心과는 다른 것이다。그러므로 반드시 이 兩者 사이에 精一을 극진히 하여〈공정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늘 일신과 萬事의 主가 되고〈사사로워 혹 善하지 않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 모든 言動이 굳이 過·不及을 가리지 않더라도 절로 中節

할 것이다。[人之有生 性與氣合而已 然卽其已合而析言之 則性主於理而無形 氣主於形而有質 以其主理而無形 故公而無不善 以其主形而有質 故私而或不善 以其公而善也 故其發皆天理之所行 以其私而或不善也 故其發皆人欲之所作 此舜之戒禹 所以天理人欲之別 自其根本而已然 非謂氣之所爲有過不及而後流於人欲也 然但謂之人心 則固未以爲悉皆邪惡 但謂之危 則固未以爲便致凶咎 但旣不主於理而主於形 則其流爲邪惡 以致凶咎 亦不難矣 此其所以爲危 非若道心之必善而無惡有安而無傾有準的而可憑據也 故必其致精一於此兩者之間 使公而無不善者 常爲一身萬事之主 而私而或不善者不得與焉 則凡所云爲 不待擇於過不及之間 而自然無不中矣。](八)

『書經』 大禹謨의 〈인심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전일하게 해야 진실로 그 中을 잡으리라。[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여기서 〈人心과 道心의 구별은 根本으로부터 그러하다。[人心道心之別、自其根本而已然。]〉 한 대목은 互發說을 주장하는 嶺南學派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입론 근거로、葛菴 李玄逸 이후로 줄곧 의심 없이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주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편지의 분명치 못한 곳은 전적으로 이 단락에 있다。〈혹 善하지 못하다〉면 응당 善한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를 〈모두 인욕이 짓는 것이다。〉 하였은즉 주자가 이 당시에는 인욕이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氣가 하는 바에 만약 過·不及의 차이가 없다면 인욕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천리와 인욕이 근본으로부터 이미 그러하다면 胡氏가 〈同體異用〉이라 한 것이 그야말로 옳은 말이 될 것이며、인욕의 根株가 천리와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인심과 도심을 가지고 말해 보더라도 性命은 大本이고、형기는 旁緣이니、이 둘을 함께 놓고 근본이

(八) 『朱子大全』 四四권。

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三山集』을 보니、 이 말을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였으니、 실로 공정한 말이다。(九)

위 「答蔡季通書」에서 인심에 대해 〈사사로워 혹 善하지 않으니、 따라서 그 발하는 것이 모두 人欲이 짓는 것이다〉 한 것을 보면、 주자가 이 당시에 인심 그 자체가 善·惡、 양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여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心 중에서 性命과 形氣가 나란히 근본이 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어 〈천리와 인욕이 구별되는 것은 그 근본으로부터 이미 그러하다。 氣가 하는 바에 過·不及이 있은 뒤에 인욕으로 흘러드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는 未發의 心中에 천리와 인욕이 함께 있어 각각 따로 發出하는 것이 된다。 한주는 性命은 心中의 大本이고、 形氣는 旁緣、 즉 心中의 理가 發하여 直遂하지 못할 경우 이에 緣由하여 側出하는 곳일 뿐이므로 심중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위 胡氏는 五峯 胡宏이다。 그는 性은 본래 善惡이 없어서 天理와 人欲이 같이 同體異用、 즉 性을 본체로 하고 作用만 다른 것이며、 따라서 性은 體이고 心은 用이라 주장했는데、 주자는 「答趙致道書」에서、

> 만약 善·惡이 동서쪽에서 상대하여 피차가 角立한다면 이는 천리와 인욕이 같이 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未發의 상태에 이미 천리와 인욕의 두 단서가 갖추어져 있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天命之性이란 것 역시 매우 汚雜한 것이 되니、 이러한 견해는 바로 胡氏의 同體異用의 뜻이다。(一〇)

(九) 此書之未瑩 全在此段 或不善則亦應有善者 而謂皆人欲之所作 則朱子此時以人欲爲可善可惡底物矣 氣之所爲 如無過不及之差 則人欲何從而生乎 天理人欲自根本而已然 則胡氏同體異用之云 正爲得之 而人欲之根株 與天理而竝立矣 雖以人心道心言之 性命是箇大本 形氣則其旁緣 不可竝謂之根本 近見三山集 深以此語爲未安 實公案也。『寒洲全書』(아세아문화사、一九八〇년) 一책 二三八쪽、「答李稚肅」。

(一〇) 若以善惡東西相對 彼此角立 則是天理人欲 同出一源 未發之前 已具此兩端 所謂天命之性 亦甚汚雜矣 此胡氏同體異用之意也。『주자대전』五九권、「答趙致道」。

라고 한 문목에 대해 옳다고 수긍했다。이 부분은 『절요』 一六권에 수록되어 있다。

또 한주는 위 「答蔡季通書」의 산절된 부분에 〈그 후에 주자 스스로 말이 분명치 못하여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했으므로 주자의 정설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였다。지금 『대전』 「答鄭子上書」에서 그 설을 찾을 수 있다。

정자상이 주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마음의 신령함이 바로 道心이니、도심이 보존되고 이 마음 비어 있으면 알지 못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어찌 이 몇 가지만 아는 데 그치겠습니까?

하니、주자가 答書에서、

이 마음의 신령함이 理에서 지각하는 것이 도심이고 欲에서 지각하는 것이 인심이다。昨日에 季通에게 답한 편지는 말이 분명치 못하니 근거하여 說을 삼기에 부족하다。(一一)

하였다。도심과 인심의 구별을 心性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心이 지각하는 대상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주는 「答蔡季通書」의 說은 마치 본성 속에 善과 惡이 대립하여 공존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계가 『주서절요』를 편찬할 때 人心을 人欲으로 본 부분과 함께 刪去했고、그 이하는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주서절요』

(一一) 此心之靈 卽道心也 道心苟存而此心虛 則無所不知 而豈知此數者而止焉 此心之靈 其覺於理者道心也 其覺於欲者人心也 昨答季通書 語却未瑩 不足據以爲說。上同。

에서 채록하였으니, 퇴계의 取捨가 매우 정밀하다[一二]고 하였다。 그리고 한주는 이 단락을 論據로 사용한 퇴계 이후의 학자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 錦陽[葛菴] 이래 영남의 학자들은 왕왕 分開 쪽에 치중한 나머지 『절요』에서 刪去한 것을 다시 『講錄』에 싣기도 하였으니, 혹 正見에 누가 될까 두렵다。 湖上先生(大山 李象靖)의 간명한 정설도 미처 이 점을 감정하지 못하였다。[一三]

〈근본으로부터 이미 그러하다〉는 一段은 朱先生이 스스로 〈분명치 못하다〉고 하였고 퇴계도 『절요』에서 刪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分開說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密庵과 大山이 서로 이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자와 퇴계가 이미 버린 설이다。[一四]

葛庵 李玄逸 이후 嶺南學派에서 畿湖學派의 栗谷의 氣發一途說을 반박하고 퇴계의 理氣互發說을 옹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었던 설을 이미 퇴계가 정설이 아니라고 여겨 『절요』에서 산삭했다는 것이다。 『절요』를 所依經典처럼 尊信하는 영남학파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절요』는 여전히 더 연구할 여지가 남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요』는 퇴계의 학통을 이은 嶺南學派 안에서도 중요한 학설의 爭端을 제공하고 있으니, 嶺南·畿湖 兩

(一二) 今謂根本已然 則反有善惡在性中相對爲兩物之病 故節要並刪去之 若夫舜戒禹以下 明瑩無疑 可據而爲說 故節要采錄之 退陶取舍之精如此。『한주전서』 上同書 一책 二一九쪽, 「答姜耘父 別紙」。

(一三) 錦陽以來 往往於分開上占得多了 節要所刪 復載於講錄 或恐反累於正見 湖上先生兩下普說 猶未及契勘於此。 上同書 一책 二二三쪽, 「答姜耘父」。

(一四) 自其根本一段 朱先生自以爲未瑩 退陶又刪之於節要 而以其式近於分開說 故密庵大山相繼遵用 然實則朱李已棄之說也。 上同書 一책 二三七쪽, 「答李稚肅」。

學派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위「答鄭子上書」의 一段을 퇴계가『절요』에 수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畿湖學派의 南塘 韓元震이 〈取捨가 정밀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辨駁하였다。즉 이 단락이 매우 정밀하고 簡約한데도 퇴계가 刪去한 것은 靈과 覺을 연이어 말한 것이 불교의 說과 비슷하게 보일 우려가 있고 理와 欲을 상대하여 말한 것도 온당치 못하여 後學의 의혹만 불어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한주는 그러나 이 구절도 活看하면 퇴계의 생각처럼 문제가 될 것은 없으므로 採錄해도 무방하다고 한다。(一五)

그리고 한편 한주는 위「答蔡季通書」의『절요』에 수록된 부분 중에서 고쳐야 할 곳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였다。먼저『절요』의 문제가 된 부분을 보자。

이것이 舜이 禹에게 경계하신 본의인데 내가『中庸』서문에서 이미 서술하였다。形氣에서 發하는 것을、보내온 편지에서 의심한 것처럼 죄다[盡] 不善하여 淸明純粹할 때가 있을 수 없다고 곧바로 간주한 것은 결코 아니다。단지 여기서 말하는 청명순수란 것이 이미 形氣의 偶然에 속하는 것이고 보면 이 또한 단지 理를 막지 않고서 理가 발휘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따라서 이를 대뜸 도심이라 하여 惟精惟一할 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此舜戒禹之本意而序文述之。固未嘗直以形氣之發、盡爲不善而不容其有淸明純粹之時、如來喩之所疑也。但此所謂淸明純粹者、旣屬乎形氣之偶然、則亦但能不隔於理而助其發揮耳。不可便以爲道心、而欲拒之以爲精一之地也。]

形氣에서 發하는 人心이라 해서 不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 善하지만 그것은 그 氣가 혹 淸明純粹할 때가 있어서 그러한 것일 뿐이므로、순수하게 理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惟精惟一할 대상이 되는 道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一五) 答鄭子上書覺於理一段 果似精簡 而聯說靈覺 嫌於佛旨 對說理欲 疑於數柱 易滋後學之惑 故節要不爲附入 非出於未及契勘也 近世韓南塘執此以攻節要以爲取舍不精 鄙嘗辨之 然活看則不做病 采錄無妨否。上同書 一책 二一八쪽、「答姜叔父 別紙」。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죄다[盡]〉의 〈盡〉 자와 〈偶然〉의 〈偶〉를 刪改해야 정론이 될 수 있다고 한 위 견해에 대해 한 주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形氣에서 發한 것은 善도 있고 惡도 있으니, 善한 것은 上智에게도 없을 수 없는 것이요 惡한 것은 일반 사람에게 많은 것이다。대개 그(人心) 정상이 惡하기는 쉽고 善하기는 어려우므로 〈盡〉 자와 〈偶然〉 자를 붙여야 했던 것이다。보통 사람의 情은 混濁駁雜한 것이 늘 發作하고 淸明純粹한 것은 그 우연한 곳일 뿐이다。心이 未發한 시점에서는 진실로 인욕의 根株가 없다。그러다가 겨우 心이 발했다 하면 氣가 곧 用事하여 인욕의 사사로움이 이미 많이 싹트는 것이 마치 나무가 寄生하여 곁갈래로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 형기에서 발하는 것에 어찌 善하지 않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한 단락은 退陶가 이미 『주서절요』에 넣은 것인데, 후학이 어찌 감히 빼낼 수 있겠는가? 退陶가 〈氣에서 발한 情도 善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니, 그대의 설은 진실로 여기에 근본했을 것이다。그러나 退陶의 경우에는 情이 처음 발할 때를 말했고, 그대의 경우는 情이 발한 始終을 아울러 말했다。(一六)

(一六) 形氣之發 有善有惡 善者則上智之不能無 惡者則衆人之所多有 蓋其情狀 易惡而難善 故須著盡字偶然字 常人之情 昏濁駁雜 常常發作 而淸明純粹 乃其偶然處也 此心未發之前 固無人欲之根株 而纔發之際 氣便用事 人欲之私 已多萌孽 如木之有寄生側秀 形氣之發 安能無不善此一段退陶入節要 後學何敢摘抉乎 退陶言氣發之情 亦無不善 盛說固本乎此 而彼則但言其始 此則兼擧其終。『한주전서』上同書 一책 二二八쪽, 「答李稚晦」。

朱子書 選集類 중에서 『절요』와 함께 가장 많이 유포된 책은 正祖의 『朱書百選』(一七)이다。『백선』은 『절요』를 재차 刪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안 될 만큼 그 내용이 『절요』의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그런데 위 「答蔡季通書」 중 『절요』에서 있는 부분이 『백선』에는 없으며、『절요』에는 없는 고대에 琴의 絃의 완급을 바꾸어가며 조절했다는 旋宮法에 관한 부분이 『백선』에는 수록되어 있다。그리고 매우 중요한 학설에서도 『절요』와 『백선』의 내용이 다른 곳이 있다。편찬자의 학문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먼저 『절요』에는 있고 『백선』에는 없는 부분이다。

리가 동정이 있으니 기가 동정이 있다。만약 리가 동정이 없다면 기가 무엇으로부터 동정이 있겠는가? 우선 목전의 사실로 논해 본다면 인은 동하는 것이고 의는 정하는 것이니、이것이 또 기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且以目前論之 仁便是動 義便是靜 此又何關於於氣乎」

이는 『절요』 一五권 「答鄭子上書」의 일부분으로 理發說을 주장하는 영남학파에서는 결정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것인데 『백선』에서는 산절되었다。다음은 『백선』에는 있고 『절요』에는 없는 부분이다。

내가 지난 번에 太極을 體로 삼고 動靜을 用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진실로 병통이 있다。그래서 그 후에 이미 고쳐서 〈태극이란 本然之妙이고 동정이란 所乘之機이다。〉 하였으니、이렇게 하면 거의 이치에 가까울 것이다。보내온 서찰에서 體·用이란 용어에 대해 의심하여 말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다만 그대가 의심한 설과 내가 고친 설은 또 서로 같지 않은 듯하다。만약 태극이 동정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되고 태극이 動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되겠지만 태극 그 자체가 동정이라 한다면 이는 형이상하를 구분할 수 없어 『周易』의 〈역에 태극이 있다。〉는 말

(一七) 이하 『百選』으로 약칭한다。

이 군더더기가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계통이 논한 것이 더없이 精詳하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오래 생각해 보면 절로 이치가 밝아질 것이니、 달리 의심을 일으켜 스스로 자신을 얽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熹向以太極爲體動靜爲用 其言固有病 後已改之曰 太極者本然之妙也 動靜者所乘之機也 此則庶幾近之 來喩疑於體用之云甚當 但所以疑之之說則與熹之所以改之之意 又若不相似然 蓋謂太極含動靜則可 謂太極有動靜則可 若謂太極便是動靜 則是形而上下者不可分 而易有太極之說易贅矣 其它則季通論之 已極精詳 且當就此虛心求之 久當自明 不可別生疑慮徒自繳繞也。]

『백선』 五권 「答楊子直」에 실려 있는 것인데 『절요』 八권에서는 이 부분이 산절되고 그 이하만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理無爲〉와 〈機自爾〉를 주장하는 栗谷 李珥가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사용하는 설인데 퇴계는 주자의 정설과 다소 다르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은 필자가 본 것 중에서 매우 두드러진 例일 뿐이니、 이 밖에서 세밀한 부분에서 연구되어야 할 곳이 많을 것이다。

四、『記疑』와 『講錄』의 차이

『기의』와 『강록』은 현재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고 그 序跋이 없어 이 책들이 편집된 경위를 알 수 없다。 다만 『記疑』의 체제는 一五권이라 退溪가 만든 당초 사본의 一四권에 가까운데 『講錄』의 체제는 『절요』의 二〇卷에 맞는 것으로 보아 『강록』이 『기의』를 轉寫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듯하다。 그리고 『記疑』는 내용을 註釋하는 데 그쳤고、 『講錄』은 한 걸음 나아가 唐本、 『大全』、 韻會를 참조하여 校勘한 것을 덧붙여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講錄』은 『記疑』를 옮겨 쓰면서 다소 增補와 刪削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 『記疑』는 吐를 한글로 달았는데 『講錄』은 주로 吏讀를 사용하고 한글을 약간 섞었다는 점도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이 책들이 퇴계의 손을 거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密庵 李栽는 『강록』을 보완하여 『講錄刊補』를 편찬하고 그 서문에서、 퇴계의 제자인 月川 趙穆의 서찰에 〈『朱書』의 註解는 당시 제자들의 질문에 퇴계가 구두、 또는 서찰로 답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인데 퇴계의 手校를 거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그대로 간행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을 인용하고、 『강록』에는 오류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完正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포된 저술、 예컨대 『心經質疑』와 『庸學釋義』 같은 책들을 서둘러 焚板하고야 말았던 퇴계의 신중한 자세로 보아 이 같은 미완의 저술을 낼 리가 없다고 하고、 근년에 이 책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퇴계의 감정을 거친 것으로 단정하여 印出했다고 우려하였다。(一八) 반면에 尤庵 宋時烈은 『朱子大全箚疑』의 서문에서 『기의』를 퇴계의 저술로 단정하였다。(一九)

『강록』과 『기의』는 기실 같은 책인데 어떻게 하여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 이책의 이름을 영남에서는 『강록』이라 하고 기호에서는 『기의』라 한 것은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인가? 명확한 해답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 月川의 언급에서 〈『주서』의 주해〉라 한 것으로 보아 퇴계 당시에는 이 책에 대한 이름이 없었고 후대에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강록』이란 말 그대로 제자들이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므로、 퇴계가 직접 저술한 것

(一八) 按月川與人書曰 朱書註解 多因一時質問 或口授 或書箚 學者記錄成帙 而或經先生手校 或未經手校 似難遽入梓 蓋其所聞有淺深 文字易差失 則記錄之誤 固程門諸子所不免 今試就是錄而細考之 名理或蹟 事證頗謬 往往失其本旨者非一 間或繁簡異例 先後失次 使人讀之 不能無遺恨 仍竊惟之 老先生於凡傳後文字 無不致謹以詳 或有未及完正而遽流布者 亟請焚板而後已 觀其與月川高峯論心經質疑及庸學釋疑 可知已 且李平叔諸公所爲心經質疑 未經是正明甚 頃歲一時諸賢不復審覈眞僞 斷然以爲先生所財酌 遽加雌黃 印出書館 今是錄也 旣未經勘校 如彼 而流傳百世之後 又安知不以爲老先生手錄如向來之爲乎 是爲可懼已。

(一九) 退陶先生手抄朱子大全簡牘 爲二十編 名曰朱子書節要 而又有記疑一册 以釋其肯綮難解處 以訓蒙士 其功大矣。

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반면 『기의』란 의심스런 부분을 기록한 것이므로、퇴계의 저술임을 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영남에서는 미완의 저술이므로 『강록』이라 하여 퇴계의 저술로 단정하지 않았고、기호에서는 그래도 퇴계의 손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하여 『기의』라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梅山 鄭重器(一一〇六~一一七九)는 『朱子書節要集解』를 편찬하고 그 서문에서、

> 『강록』이란 책에는 혹 〈質疑〉란 말을 쓴 곳도 있으며、게다가 그 내용 중에 〈혹자가 묻기를……〉 〈선생이 답하기를……。〉 한 것이 한두 곳에 아니고 보면 문인의 손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런데도 『箚疑』에서는 이를 『기의』라 지목하여 師門의 手錄이라 하였다。誤認한 것이 이와 같은데 이르렀으니、혹 오류를 이어받을까 두렵다。(二〇)

하여、우암 송시열이 『강록』의 명칭을 『기의』로 바꾸어 퇴계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하였다。이 책을 놓고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절요』 최초의 주석서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우암의 『朱子大全箚疑』가 나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주석서들에서 이 책의 견해와 『箚義』와 견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짐으로써 주자학의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李 相 夏(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

(二〇) 講錄之書 或稱質疑 且於其中 有曰或問云云先生答曰云云者非一 則其出於門人所記 較然無疑 而箚疑乃目之以記疑 喚作師門手錄 錯認至此 或恐後人之襲謬。